

조국 위한 ‘결연한 외침’…女독립 열사들 새기다

이강하미술관, 3·1만세운동 기념전 4월 26일까지
참여작가 윤석남·류준화·김희상·독립정신 상기
“이들의 삶과 실존 기억하며 예술적 연대 희망을”

“이제 이들을 위로하는 방식, 이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렸던 남자현 열사는 도시락 폭탄을 날렸던 장면인 중 한 명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의 데모인데, 누군가의 동생이나 딸, 엄마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를 생각했을 때,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을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이번 전시 기획자인 이선 학예실장이 한 말이다.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와 유공자 등 선현들을 기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수피아여고 등 3·1 만세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양림동 3·1만세운동길 소재 한 미술관이 마련했다. 아예 도로명을 3·1만세운동길로 정한 데는 일제 강점기 시절 폭압에 항거했던 광주시민들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등 그만큼 유서깊은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새겨진 목비석도 이 일대에 있다. 그만큼 상징적 공간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기릴 때 남성 위주의 시각이 많아 여성독립운동가를 여성적 시각에서 풀어보기 위한 시도로 가치가 깊다. 양림동만 해도 강화선 등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여성시각에서 재편하고 재해석, 새롭게 큐레이팅한 전시가 마련된 것이다.

이강하미술관이 지난 2월 20일 개막, 오

는 4월 26일까지 광주3·1만세운동 기념으로 마련한 ‘결연한 기록들’전이 그것으로, 평소 망각하며 살아가는 선현들에 대해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로 부족함이 없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하나의 고정된 초상으로 재현하지 않아서다. 이같은 기획은 오래 전부터 했으나 조금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시는 107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3·1만세운동의 구체적 사건과 인물,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기억의 계보를 따라가며,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 역사적 문헌과 예술적 해석을 병치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기록이 언제나 완결된 서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다시 쓰이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기록의 공백과 단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망각과 왜곡의 문제를 함께 제고하고, 예술이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확장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우선 의미는 감지만 독립유공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역시 판매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순전히 그들을 기리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면 전시 동참마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신의 안위를 헌신처럼 내던진 여성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과 애국 애족정신을 아로새기기 위해 예술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했다. 참여작가로는 윤석남, 류준화, 김희상씨 등이다.

그동안 역사 서술의 주변부에 머물러왔던 광주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존재와 민



이강하미술관이 오는 4월 26일까지 광주 3·1만세운동 107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결연한 기록들’을 선보인다.

중 실존을 중심에 놓고자 고심한 작가들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하나의 고정된 초상으로 재현하지 않고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참여작가들은 서로 다른 조형적 접근을 통해, 여성들의 저항이 지닌 감정의 층위, 신체의 기억,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적 감각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1939년 만주 출생인 윤석남 작가의 설치와 회화작업은 오랜 시간 여성과 역사, 억압과 기억의 문제를 다뤄온 조형적 실존을 통해, 침묵 속에 배제됐던 여성 주제들을 다시 역사적 장면의 중심으로 소환하고 있고, 1963년 안동 출생인 류준화 작가의 회화 작업은 기록과 상상, 사실과 감각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 방식을 비가시적인 층위에서 탐색, 지금의 현장에서 위로하고 있다. 이어 1964년 나주 출생인 김희상 작가의 ‘사랑 꽃’ 연작은 흙을 사용해 빛은 도조인물상으로, 개인과 집단, 현재와 과거가 교차

하는 지점을 통해 민중들의 사상과 행위에 대한 동시대적 의미를 확장한다. 더욱이 김 작가는 허리 디스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오백나한상 작업에 몰입해 있던 차, 복대를 차고 인물상들을 빚어냈을 만큼 이 전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인물상은 72점으로 높이가 다른 기단을 만들어 배치, 입체적 공간 구성을 갖췄다. 김 작가는 지난 2월 26일 전시장을 직접 찾아 작품 설치를 살펴봤다.

전시를 미리 둘러본 이매리 작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전시는 누가 기획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꾸 이런 전시를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한다. 왜 자기가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고, 기획자인 이선 학예실장은 “이강하미술관의 텃자리인 광주 3·1만세운동의 역사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감각하고 느껴보는 전시가 됐으면



이선 학예실장이 이매리 작가(왼쪽 첫번째) 등에게 전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 관람 네이버 및 유선전화로 사전예약하면 도슨트의 해설로 쉬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개막 행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몽유도원도’



‘금강내산’

APEC서 만난 이이남 작품…생생한 감동 전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선보인 이이남 작가의 ‘금강내산’이 ACC 미디어월에서 상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8월 23일까지 ACC 미디어월에서 제33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2025 KOREA)에서 선보인 이이남 작가의 4개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은 지난해 세계 21개국 정상들에게 한국문화의 저력을 확인시켜준 APEC 특별전시의 성공을 기념하고, 그 예술적 성과를 대중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미디어월 상영에는 APEC 정상회의장 및 라운지에 설치돼 세계 정상 및 글로벌 경제 리더들에게 한국의 예술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주요 작품을 비

8월 23일까지 ACC 미디어월서 ‘금강내산’ 등 4점

‘평화 메시지’ 기원… 글로벌 리더 소통 현장도

롯해 글로벌 리더들이 예술로 소통했던 생생한 현장 영상이 포함돼 있다. 경주와 백전선센터(HICO) 정상회의장과 라운지에서 상영됐던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당시 엄격한 외교 현장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로 선보인 ACC 미디어월은 가로 36m, 세로 9m 규모로, 3.9 Pitch의 고해상도 LED 패널과 측면의 곡면 설계로 시야각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상영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안연의

고전을 미디어 언어로 재해석한 ‘몽유도원도’, 남북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로 IMF 총재 및 각국 정상 의 목적을 집중시켰던 ‘금강내산’, 김홍도의 목죽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목죽도’, 병풍 형식으로 동양적 사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고전회화-해피니스’ 등 4개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작품 중 ‘금강내산’은 경제 정선의 필치 위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남과 북의 상징적 건물이 하나의 산 위에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단’을 넘어선 ‘공감’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목죽도’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화

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예술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렌스홀 앤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했던 생생한 현장 영상도 함께 상영돼 현장의 감동을 더한다.

이이남 작가는 “세계 정상들을 대표시킨 K-미디어아트 정수를 ACC의 상징적인 미디어월에서 상영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면서 “이번 상영이 광주의 미디어아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시민들이 글로벌 수준의 예술을 일상에서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국제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상회의 무대에서 예술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지 확인했다”면서 “경주에서 꽃피었던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 시민들에게도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해설이 있는 가·무·악으로 활기찬 새해 기원

국립남도국악원, 7일 오후 3시 진악당 무대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장 박정경)은 오는 7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국악연주단 ‘해설이 있는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가·무·악 종합 무대로 꾸며진다.

박정경 국악원장의 사회로 문을 여는 이번 무대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 지기를 기원하는 ‘천년만세’로 시작한다.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등 세 악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장중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이어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여사가 돼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이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를 만나는 부분을 노래한 ‘어사상봉’ 대목을 선사한다.

아울러 난이도와 완성도가 높아 모든 류파를 관통하는 대표적 민속무용

인 ‘승무’, ‘평조희상’의 첫 곡인 ‘상령산’을 정단 없이 연주자가 화려한 가락을 더해 들려주는 피리독주 ‘상령산 풀이’이 무대를 채운다.

정월대보름에 맞춰 남도민요 ‘달맞이’와 ‘액액타령’은 물론이고, 화려한 의상과 양손에 부채를 들고 추는 ‘부채춤’, 마지막으로 힘차고 빠른 경상도 농악의 특징을 살린 ‘영남농악’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 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540-4042.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